

7. 27 이 전하는 사랑의 전설

조선에서의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은 세계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렬치절한 전쟁이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세계가 우려하던 제국주의자들과의 준엄한 대결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거대한 승리는 세상을 놀래운 기적중의 기적이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지략과 전략전술이 낳은 승리인 동시에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낳은 빛나는 승리였다.

구출작전

주체 40 (1951) 년 11 월 초순, 전선의 운명과 관련된 크고작은 일들을 다 돌보시느라 늘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인민군전사의 가족이 적구에 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 전사는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을 적극 벌려 한달동안에만도 5대의 적비행기를 쏘떨군 영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비록 어려운 전쟁을 하고있지만 영웅의 가족을 적구에서 구출해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친히 구출작전을 짜주시였다. 그러시고 가족들을 데려올 때 집에서 쓰던 낡은 농쟁기 하나, 비자루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이렇게 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짜주신 작전계획에 따라 한 전사의 가족을 위해 웅근 한개 련대의 력량이 동원된 실로 전쟁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랑의 구출작전이 진행되였다.

이렇듯 포화속에서 꽃핀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들은 조선인민군대가 무비의 용맹을 떨치며 빛나는 전승을 가져올수 있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였는가를 전설처럼 전하고있다.